

결혼의 달? 지출의 달!...직장인들 '한숨'

지출 많은 가정의 달 5월 청첩장 쇄도에 직장인들 울상 동료·친구 축의금 기본 10만원...월 경조사비 수십만원 고물가 버티는 유리지갑 "축하보다 축의금 걱정 앞서"

"카카오톡으로 청첩장이 날아올 때마다 겁이 나네요. 이달만 해도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보내온 지인이 5명이예요."
직장인 최모(32)씨는 지인들이 보내온 청첩장을 보여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최씨는 당장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고교동창과 직장 동료 결혼식 두 곳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이달 말까지 참석해야 하는 결혼식이 3곳이 더 남았다. 이번 달 축의금으로만 최소 50만 원은 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씨는 "요즘 분위기가 축의금 10만원이 기본이다"며 "다음 달에도 결혼한다는 지인들이 많아 걱정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36)씨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어린 아들을 둔 박씨는 '어린이날' 자녀의 선물과 여행비, 또 양가 부모님 용돈을 챙기느라 지출이 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청첩장을 보내오는 지인들이 늘면서 다음 달까지 예고된 결혼식만 7건 정도에 달한다. 가족이나 돈 나갈 일이 많아 축의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박씨는 하소연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가정의달' 5월을 맞았지만, 각종 지출이 늘어나면서 되려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직장인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린이날과 어린이날과 같은 기념일에 지출이 증가한 데다, 황금연휴(27-29일)까지 앞두고 있어 '두려운 5월'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식이 물리면서 5~6월 결혼 소식을 알리려는 곳이 크게 늘어나 직장인들의 근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 속에서 모든 경조사를 챙기려면 지갑 사정이 너무 빠듯한 탓에 축하보다 축의금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당장 광주지역 예식장 1인당 식대는 5만 원을 웃돌면서 축의금 5만원은 너무 적다는 인식도 크게 확산했다. 최소 10만원은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

성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축의금 5만 원을 내고 밥을 먹으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 지인 중에는 축의금 5만 원 내고 혼주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도 들려왔다"면서 "그렇다 보니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축의금은 기본 10만 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 결혼정보회사가 작년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적정 축의금 액수'를 물었더니 53.3%가 1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45.3%로 절반에 가까웠다라는 점이다.
또 최근 인크루트가 '축의금 얼마 내야 적당한가?'라는 주제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6%가 '사적으로 자주 소통하는 경우'라면 10만 원을 낸다고 답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8만원이었는데, 결혼식 3곳만 가도 월 임금의 10% 이상이 축의금으로 나가는 셈이 된다.
더구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7%가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식품과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 서민들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6~8%대를 유지했다.
치킨 한 마리에 3만원, 햄버거 세트 1만원 등 돈 1만원으로는 점심 한 끼 때우기 힘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5·18 '넋이통장' 판매 수익금 기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넋이 5월, 그 날을 기억하며(이하 넋이통장)'의 판매 수익금 2000만 원을 5·18기념재단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넋이 예·적금'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의 일부를 2021년 기부해 왔으며, 이날까지 총 6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넋이 예·적금'은 2020년 12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0주년을 맞아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출시한 '넋이통장' 전용 상품으로, 통장 표지 및 속지에 옛 전남도청 등 5·18 사적으로 지정된 곳의 이미지를 담아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넋이 예·적금'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과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넋이



예·적금'과 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고향으로 카드' 가입 행사

이용액 일부 공익기금 조성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지난 10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zgm(지금) 고향으로 카드' 가입행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박병규 구청장, 고성신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병규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특화상품인 'zgm. 고향으로 카드'에 가입했다.
'zgm. 고향으로 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고향사랑 기

부 특화카드로, 지역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지역가맹점 이용 시 최대 1.7%가 적립되며 카드에 지역명 명기가 가능하고, 이용금액의 0.1%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공익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내춘 본부장은 "광주 관내 농협 전 영업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수납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금융상품을 적극 판매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벼 전남협의회 정기총회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 10일 전남본부 중회의실에서 농협 벼 전남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는 조합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 결의 및 협의회 임원진 선출, 쌀 수급안정 및 쌀 적정생산대책 총력추진 다짐 결의대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를 통해 부회장에 ▲이계욱 조합장(특광농협) ▲김정수 조합장(동북농협) ▲박정문 조합장(산이농협) 감사에는 ▲조영범 조합장(신안농협)

▲박영수 조합장(일로농협)이 선출됐다.
또 참가자들은 ▲전남 쌀 가격지지 ▲판매확대 ▲식량공급기조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으며, 2023년도 쌀 적정생산 대책(전남농협목표 5600ha)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농협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김철규 협의회장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농협 벼 전남협의회가 전남 쌀의 위상을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깨끗한 바다 '保海' 합시다

보해, 광주 동명동에 플로깅 팝업스토어 오픈...25일 목포에 교육+체험센터도

보해양조가 12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보해 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를 열고 캠페인에 돌입한다.
11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는 바다와 플로깅, 소금을 주제로 문을 연다.
보해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등 세계 3대 소금으로 쓴맛을 잡아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보해소주의 핵심 원료인 소금이 나는 바다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



보해양조가 동명동에 열 보해소주 플로깅 팝업인 '스몰 액션 스토어' 현장 조감도. <보해양조 제공>

'스몰 액션'(SMALL ACTION)은 바다를 지키려는 개인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깨끗한 바다'라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보해는 오는 25일 플로깅 교육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를 전국 최초로 목포에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2일 문을 여는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는 플로깅과 플로깅센터를 알리고자 유동 인구가 많은 동명동에 조성하게 됐다.
스몰 액션 스토어는 보해를 대표하는 파란색과 보해소주 제품 디자인에 적용된 추사 김정희의 '바다 해(海)'를 포함한 타이포그래피로 꾸며졌다.
방문객들은 생분해성 수지 생생장갑 및 비닐봉지, 대나무 집게로 구성된 친환경 플로깅 체험 키트를 받아 동명동 일대에서 플로깅을 한 후 쓰레기 분류를 마지면 소금 아이스크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 업로드,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해소주 굿즈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수거된 쓰레기는 작가들과 협업을 거쳐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해 팝업스토어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전시된 작품을 보면서 '쓰레기에서 보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보해의 설명이다.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는 오는 7월12일 까지 운영되며 휴무일 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방문객들을 위해 플로

깅 체험 외에도 친환경 에코백, 양말, 보해소주가 더해진 프리미엄 플로깅 키트, 어패럴 3종, 머그컵, 포스트카드, 보해소주캐리어 등 굿즈 판매 등도 함께 진행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바다를 보호하는 일이 작은 관심과 실천, 즉 스몰액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길 기대한다"며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활동보다 보해소주의 솔트레시피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브랜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파트장협, 장애인과 야구 관람

기아 오토랜드 광주 파트장협의회(회장 정관중)는 지난 10일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로 초대해 KIA 타이거즈 야구경기 관람을물고,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야구경기 관람 행사에는 (사)광주장애인 문화협회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파트장협의회는 장애인들이 수월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
정관중 파트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문화 행사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눔과 봉사의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장애인들의 문화·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야구경기 관람을 위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 파트장협의회 회원들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제공>

전남신보, 저금리 전환 500억 규모 보증상품 출시

전남신보보증재단이 전국 최초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특별 이자지원 협약을 전남도와 체결한 뒤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전남신보는 11일부터 전남도 소상공인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안심전환 우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보증은 기존 전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 2023년 내 만기 도래하는 경우, 저금리 연장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기존 보증서 대출의 만기 연장 시 금리가 6%대에 달하고 있으나, 해

당 상품은 전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약 3% 감면된 2%대의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전환 대출을 위한 특별자금 500억 원을 별도 편성에 기존 전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금리부담 및 상환부담 없이 저금리로 계속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심전환 우대보증은 기존 보증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한 지원되며, 보증료는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전라남도 보증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1년 간 연 0.6%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남신보는 전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비용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심사조건을 우대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1.00(-5.51)
↓ 코스닥	824.54(-5.20)
↓ 금리(국고채 3년)	3.220(-0.053)
↑ 환율(USD)	1326.30(+1.50)